



2002년
12월 15일
제 52호

춘천성시신문

나침반

교회개신·부흥·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회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1998년 9월 15일 창간 발행인 윤철중 http://www.holycc.org Fax.033)257-1260 Tel.033)256-1260 춘천시 효자2동 373-90 (☎200-091)

농협강원지역본부선교회 추수감사예배

- 풍년농사와 동계올림픽 유치 위한 합심기도 -
- 강원농협본부에서 지난 5년간 감사 연합예배 드려 -

농협강원지역본부(본부장 이정복)는 농사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직장내 선교회(회장 민경욱목장)를 통하여 추수감사예배를 드렸다. 지난 11월 28일 오후 6시 30분 중앙로에 위치한 농협본부 5층 강당에서 춘천기독교연합회장을 비롯한 목사, 장로, 기독교계 지도자들과 40여개 직장선교회, 도의회선교회, 춘천올림픽, 성시화기도모임의 대표와 회원들을 초청, 2백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강단을 헌수막과 각종 과일 채소로 장식하고 찬양으로 추수감사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날 감사예배는 한원대 안수집사님의 사회로 원주농협 이사님 권사 대표기도, 홍호순 집사 성경봉독, 농협본부합창단의 특별찬송에 이어 기독교연합회장 임신영 목사(동부장로교회)가 메시지를 전

했다. 농업인과 농촌,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조은제 목사(춘천올림픽위원회 부회장)의 특별기도, 이정복 농협본부장의 인사말씀과 민경욱 회장의 감사말씀과 광고가 있었고 조은환 목사(직장선교연합회 지도목사)의 축도로 감사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 구내식당에서 햇곡식으로 마련한 만찬을 나누며 친교했다. 임 목사는 "감사하며 송축할지어다"(시편100편)라는 주제아래, 많은 결실을 창고에 가득 쌓아두고 이제는 먹고 마시며 즐기자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오늘날 네 명혼을 가져가면 무엇이 되겠느냐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야 하며 직장의 소득이나 농사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타인의 수고와 협력에 있어야 한다. 깨달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다. 자식은 부모의 은혜를 잘 모른다.

한 어리석은 자가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어서 사람들을 다 죽으라고 했고 세상 모든 것을 독점했으나 막상 배탈이 나고 보니 약이나 병원, 의사가 절실해서 모든 사람을 되살리게 했다고 한다. 내가 살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감사를 받으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 즉 통치하시는 분이다. 농협직원들이 추수감사예배를 드리는 것은 감사의 오리지날이다. 링컨은 감사절을 제정했고 우리나라는 서장로님이 제정하여 교회가 11월 셋째 주일을 감사절로 지키고 있다. 이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송축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농협 선교회는 1978년 4월 30일 농협강원지회에 발령받은 이영규 집사(현 석교회 장로)가 구내식당에

서 기도드리면서 임소문이 나게 되었고 당시 국민체조를 끝내고 모인 신앙인들이 커피타임을 가지면서 선교회 조직을 의논하게 되었고 1988년 6월 23일 선교회를 만들어 이영규 권사를 초대회장으로 선출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며 1990년 4월 17일 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를 창립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1998년 11월부터 농사일을 주관하는 농협이 먼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신앙으로 춘천남 지역본부장 이하 전 직원들이 정성을 모아 5층 강당에 예배실을 마련하고 춘천지역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변화시켰고 자라나게 하였음을 목도한 것이다. 그들은 오늘도 춘천성시화를 위하여 나를 되돌리고 앞장서서 헌신봉사하고 있다. 결코 쉽지 않은 이러한 모임을 보면서 나의 부족한 모습을 깨닫게 된다. 1995년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한자리에 모여 성시화를 위한 기도예배를 드림을 다하는 기도모임



성시화의 놀라운 결실



윤철 중 목사
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

성시화의 일꾼들을 일으키고 이제 전국 및 세계 여러 도시에 성시화를 위한 등대가 세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성시화를 말하고 기도하면서도 직접적인 사역에는 거리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본인이 지난 1년 동안 본부장으로서 있으면서 느낀점은 춘천 성시화가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변화시켰고 자라나게 하였음을 목도한 것이다. 그들은 오늘도 춘천성시화를 위하여 나를 되돌리고 앞장서서 헌신봉사하고 있다. 결코 쉽지 않은 이러한 모임을 보면서 나의 부족한 모습을 깨닫게 된다. 1995년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한자리에 모여 성시화를 위한 기도예배를 드림을 다하는 기도모임

30년전, 전국 최초로 도시성시화운동이 우리 곁으로 찾아와서 일어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므로 수많은 성시화의 일꾼들을 일으키고 이제 전국 및 세계 여러 도시에 성시화를 위한 등대가 세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성시화를 말하고 기도하면서도 직접적인 사역에는 거리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본인이 지난 1년 동안 본부장으로서 있으면서 느낀점은 춘천 성시화가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변화시켰고 자라나게 하였음을 목도한 것이다. 그들은 오늘도 춘천성시화를 위하여 나를 되돌리고 앞장서서 헌신봉사하고 있다. 결코 쉽지 않은 이러한 모임을 보면서 나의 부족한 모습을 깨닫게 된다. 1995년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한자리에 모여 성시화를 위한 기도예배를 드림을 다하는 기도모임

성시화운동본부 정기총회 개최

춘천성시화운동본부(본부장 윤철중 목사)는 12월 20일 오후 7시 칠드미리 3층 강당에서 제7차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총회는 1부 예배에 이어사업 및 제

정보고를 하고 새 본부장을 추대한다. 집행위원회는 윤 본부장의 사임을 수락하고 순복음춘천교회 김주환 목사를 새 본부장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했다.



▲ 12월 2일 춘천중앙리교회 역사박물관에서 심포지움: 감사 이덕주 교수(감신대 한국교회사)

○ 세계 선교 연구원 ○

베드로선교단 건물에 위치한 춘천세계선교연구원(대표 조은제목사)은 2002년 1월 4일 문을 열고 20명의 신학생을 대상으로 국내외 학위를 소지한 유망 교수로부터 조직신학,

기독교 상담학, 신약학, 구약학 등 교제 강의와 현지 실습 교육을 하고 있다. 2년 8개월 동안 28주간 교육, 84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할 수 있으며 졸업 후 계속 교육 희망자는 웨스

트민스터대학원대학 또는 런던신학대학교와 학점교류를 통해 동 대학에서 학위취득이 가능하다. 세계선교연구원은 특히 선교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선교원로로 현,제학자들은 금년

말 졸업하게 되며 새학기 수업은 2003년 1월 개강한다. 입학에 원하는 학생은 금년 12월 말까지 등록해야 한다.

[집수] TEL.033)253-1140 / FAX.253-9552 / 춘천시 효자2동 312-1 세계선교연구원 / E-mail: sancps@hotmail.com / bedrohp@chol.net

성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탄



재단법인 한국대학생 선교회 부설
C.C.C. 어린이집 원아모집
"사랑과 기도의 어머니처럼"



- C.C.C. 어린이집은 사랑과 기도의 어머니처럼 원아를 돌보며 풍부한 인적자원과 넓은 실내·외 전용 놀이공간, 대강당 및 4개의 교실을 활용한 최상의 교육과 보육이 이루어집니다.
- ◆ 입학: 정장복 목사(춘천C.C.C. 대표)
- ◆ 원로: 어린이 마음마다 하나님 사랑가득
- ◆ 운영이사(※이사회에 의한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한 운영)
- ◆ 이준택장로(서울치과원장) 조은제목사(베드로장 회와 원장) 신성근교수(강원대) 정경원교수(경원대) 장관집사(아이마당어린이집) 장기영가사(강원일보) 이길호집사(조흥은행지점장) 유병림 권사 연현옥집사(사우어린이집원장)
- ◆ 교육: 연영복 4개반 구성/ 각 수준에 알맞은 언어, 수, 과학, 음악, 미술, 신체활동, 놀이 학습 / 전문강사를 통한 피아노 / 미술 / 영어 / 유아체육
- ◆ 놀이이와 신앙교육: 주1회 어린이 재물, 굿모든 드림 교육
- ◆ 자연학습장 운영을 통한 환경체험
- ◆ 부모교육세미나 실시
- ◆ 교사: 이경민(원장) 이정순(경력10년) 백은정(경력10년) 서지연(경력2년)
- ◆ ■기독교: 영아(전문강사초빙) 태권도(박신철: 국가대표출신) 피아노(이경민:강사경력10년)
- ◆ 보조교사: 신현미(강원대) 신동아(춘천교회)

★ 원아모집 ★
모집인원: 4개반 각 ○원 (※각반 약20명 선착순 모집)
※이웃반(4세) 놀이반(5세) 영아반(6세)
합기반(7세)
※ 영세만 · 저소득층 자녀, 형제 강민
접수처: 033)255-5776 / 254-5776 C.C.C.어린이집

★ 귀금속 예술품전문점 ★
솔로몬
결혼예물◆금◆은◆보석◆시계
대표 이익 배정사 조순옥 집사
(순복음춘천교회)
춘천미도파백화점 1층 솔로몬귀금속점
TEL.033)243-1423 / 243-3634

현대 방앗간 기름집
(24종 및종류 · 구름전 전문)
대표 강동구 장로
(춘천동부장로교회)
TEL.033)251-5078 / 256-5088
(매주일마다 쉽니다)

국내 최고의 목회 최고의 맛! 최저의 가격!
이라! 생고기숯불갈비 뷔페
대표 윤기원 · 유주언
(춘천서로사합동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152-7
TEL.033)255-9249 / 255-9250 HP.011-371-6770
(이라비대 춘천계인사업본부 체인점 문의)

사설

교회역사 바로 세우기 우리가 할 일이다.

강원도 지방에 교회라 들어온 역사는 100년으로 경하고 있으나 감리교단 역사 기록은 몇 년 더 앞날 것 같은 것으로 암시해 주고 있고 확증자료가 미흡하여 당해 교회는 고심하고 있다. 1899~1909년 강릉교회와 감리교 선교부 사이에 선교지 분할협정을 맺고 1890년대 후반에 후발선교부였던 미남감리교회가 춘천선교부를 맡게 되었으며 춘천선교는 선교사와 전도인이 확보된 1890년대 후반에 이루어졌고 1900년 9월 4차연회 보고에서 '하' 선교가 미남선교와 강원지역을 순회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 미남선교의 2년간의 전도도 이미 200여 명에 40~160여명의 구도자가 있었고 세례 받은 교인들이 있었다고 한다. 교회역사를 바로 세우기 하는 절대적 필요 앞에서 춘천중앙교회는 감리교 역사기록을 통해 그 작업에 들어갔고 한편 김기태 경로는 성서신론 지상에 강원도기독교역사대사를 연

계하면서 교회역사 바로 세우기에 열과성을 다하게 되었다. 문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강원도 종교역사 발행 용역을 맡은 연구원이 기록자료 수집 작업에 열심한 자료를 요청해 왔고 그들과 대화 중에 1900년 이전에 최초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외송골 속회' 위치를 당시의 도면상에서 확인하게 되었다. 기록은 1901년 무스(J.R. Moose) 선교사가 전도한 미남선교 중 한 사람을 도청소재지에서 15리 떨어진 '외송골'을 방문 '속회'를 조직했다고 한다. 한 교회의 끈질긴 노력으로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강원도의 최초 교회 역사는 물론이지만 모든 교회가 역사기록을 소홀히 하지 말고 기록시무를 중요시 여기고 보존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모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중앙교회의 역사를 바로 찾아 세우는 일에는 초교파적인 관심을 모아라 할 것이다.

새벽송을 성탄문화로 계승하자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교회들은 아이들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운동과 노래, 칸타타나향으로 성탄을 축하하고 기쁨을 함께 한다. 청소년들은 저마다의 프로그램으로 밤을 세우기도 한다. 거기에 건전한 모습과 쾌락적 모습이 혼용되어 어떤 즐거움의 것만으로 타락한 성탄을 연출하여 속되게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우리에는 이제 단순히 즐거움과 복만으로는 축제 차원의 수준낮은 성탄이 아니라 좀더 거룩한 성탄을 만들어 나가야만 한다. 그러나 교회안에서는 온통 '인간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진정한 성탄이 되도록 우리 모두 정신을 차려야 하겠다. 우리나라에 교회자들이 온 후, 교회 입구에는 성탄이치며, 교회 내부에는 성탄유리를 장식하고 성탄전야에는 교인이 모여 새벽찬송으로 주께 예수그리스도의 탄생하기를 기뻐하며 맞이했다. 청소년들은 팀을 구성해 희미한 불빛

으로 새벽길을 밝히며 여기저기 성도의 가정과 이웃을 방문하며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등의 새벽송을 불렀다. 2,3시간 동안 감탄한 새벽, 함박눈에 흠뻑 젖어가며 성탄송을 아담같이 퍼뜨린 성탄절전야의 새벽길이 그리워진다. 그 새벽의 찬송소리는 온 세상을 깨우고 성탄소식을 전하기 위해 울려퍼졌다.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찾아보기 어려워진 성탄새벽송을 이제 모든 교회가 연회 또는 개별적으로 부활시켜 주님과 주님 아파드 구역을 담당하여 거룩한 성탄을 알리는 성탄문화로 계승 발전시켜 나갔으면 한다. 눈 내리는 겨울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으로 만백성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말로우신 대어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담은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실천해 이웃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성도와 성도들은 팀을 구성해 희미한 불빛

선교회소식 · 교계단신

-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 임인영 목사)가 주관하는 성탄트리 점등예배가 12월 15일 명동 중앙로터에서 있습니다.
- **춘천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회장 박성운 장로)는 정오예배 10주년을 맞아 오는 12월 24일 화요일 낮 12시 동부장로교회에서 직장선교연합회 정오예배 10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린다.
- **춘천교인 신우회**(회장: 홍천읍장 김자경)는 오는 12월 21일(토) 오후 2시 흥천회당교회(김광성 신부주교목사)에서 예찬을 마친 후 1부 정기예배, 2부 정기찬회를 갖고 찬양의 절찬과 임원선출 및 신도대 사업계획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 **춘천중앙감리교회**(권오승 담임목사)는 12월 10일(화)부터 2003년 1월 4일(토)까지 다니엘 세례 특별새벽기도회(성탄절, 신년, 주일새벽은 제외)를 가진다.
- **춘천성서감리교회**(김갑성 담임목사)는 지난 12월 6일 마을어른 100여명을 초청하여 위로하고 경로잔치를 열어 드렸다. 본 행사는 매년 실시하여 왔으며 문공부 후원, 최기석 군인원이 참석해 가운데 열린 경로잔치는 구술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재능전시로 어른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제공하고 사신작가 홍재기씨의 도움으로 영정사진을 촬영하여주는 등 뜻깊은 음식과 넉넉한 온정을 마을 어른들에게 전해 준 뜻깊은 자리였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돕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낼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데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를 잘 살펴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배 가운데서 감동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방시켜서 자라도록 마르게 하려고, 그러했던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삼단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혼제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표준선언문 사도행전 20장 34절]



황병호 교수
강원대학교 임산공학과
춘천시청로연립회장

일본의 최초 선교사 사비에르가 일본에 대한 선교의 소명을 받고 일본인 아지모에게 '대 개입'을 가한 일본인은 과연 기독교인이 될 것인가? 라고 묻자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고 한다. 일본인은 공평 기독교인이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선 많은 질문을 할 것이고 당시의 생활이 당시의 가르침과 일치하고 있는가를 검토할 것입니다. 이 점에서 합치하면 아마 구원을 비롯하여 사수와 사려 깊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앙을 수용할 것입니다. 일본인은 이성에 의해서만 지도할 수 있는 국민입니다. 일본에서의 기독교 토착은 일본 사상의 대결을 통한 승리가 없으면 있을 수가 없다. 반면에 그 대결이 과거하면 할수록 심한 박해를 초래하게 된다.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은 대결에

일본선교를 위한 제언 (2)

의해 인도되던 신자 교육에 많은 실패를 겪었다. 신자교육을 세워 일본인 사제 양성에 힘썼고, 일본을 정당하게 이해하고, 정치, 문화, 사회, 풍습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학문적 분석을 가지고, 그것에 대처하여 융합점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다나다하로오, 1992). 이와 같은 역사적 상황을 감안해 볼 때 기독교의 일본 토착을 위해서는 먼저 일본 풍토를 아는 것이 필요하고, 그 위에 대결과 더 강한 교육 교화가 현대 일본 속의 복음을 바로 토착시키는 것이 열매 맺는 길이라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만족에 빠지는 라도이게야 교회처럼 무리하게 일본풍토 속으로 매몰되어가고 있는 일본 교회가 깊은 반성과 함께, 기독교인의 수를 늘리기 위한 진도와 일본 문화 속에 매몰되지 않는 기독교 진리에 심취된 평신도들의 역할이 크게 증가되어야 한다. 한편 한국 교회의 일본 선교를 위한 중요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양국 교회는 지난 1세기의 비극적 상호관계에서 배운 역사적 교훈이 오늘과 내일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한 수 있어도 결코 잊혀지는 일이 없게 바른 역사관에 입각한 양국간의 사목관의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로 양국 교회가 바른 사

관에 입각하여 양국에 걸친 공동 선교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다. 즉 과거처럼 선교 현지 사정을 감안하지 않는 독단적인 선교정책을 버리고 현지 위주의 협력사역이 필요하다. 셋째로 70만 제일동포의 인권과 복지에 대한 양국 교회의 공동대처 문제이다(강문규, 1987). 또한 제일대한기독교회의와 교포들에게 민족의 긍지를 심어주고 자산을 쌓는 운동이 있어야 한다. 둘째, 1세의 신앙유산 즉 고난과 민족적 차별의 시대를 신앙으로 승리한 그들의 신앙유산을 재해석하여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역사교육과 역사의 재발견 및 재해석 운동이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교포 교회는 일본말 예배와 우리말 예배가 병존하거나 일본말 예배와 되어가는데, 교포 2-3세에 의해서 모국어가 계속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노정일, 1987). 그리고, 현재 각 교단 및 선교단체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은 본국과 긴밀한 연락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파송단체 중심의 선교가 되기보다는 선교사 중심의 선교가 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 즉 파송된 선교사가 어떠한 사정에서 사역을 그만두는 경우 그 지역에서의 사역에 대한 정보도 나누어주는 체계적으로 할지 못하며, 파송단체가 새로운 선

교전략을 세우는 등 전략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이고, 이는 선교업무 수행을 고도화하는데 방해 요인으로 되기 쉽다. 또한 파송단체를 달리하는 각각의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서로 협력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즉 같은 지역에서 사역을 하더라도 파송단체가 다르므로 서로 협력하지 않으므로, 만일 협력사역을 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선교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일들도 놓치는 경우가 많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선교 현지 교회와의 관계인데, 대부분 현지 교회와 협력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매우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데, 지금 세계적인 선교의 추세가 선교 현지 중심의 선교로 바뀌어가고 있는 이유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결코 지속적인 부흥 및 성장을 이룩할 수 없다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종성된 선교의 미래를 맺기 위해서는 잘 훈련된 교회나 선교단체들의 단기선교가 더욱 활성화되게 하여 지역마다 파송단체를 구별하지 말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협력기구의 성립이 필요하다. 현지 교회와 충돌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교회의 어려움들을 도울 수 있는 자제 및 상호 협력적인 협력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9월) 성서화를 위해 후원하신 분들

- ◀개인▶ 강성주 김철수 김기태 김현진 민병립 박동훈 박상운 성기는 안미애 안정숙 엄필환 오홍수 이순훈 이병민 이준택 이학규 임은경 황순우 림순수 민희환 이준영 홍성훈 홍순복 정병환 장기열, 정찬복 조남진 조준환 최경용 최상호 최치광
- ◀교회▶ 춘천복음총교회(김주환목사) / 춘천석사감리교회(임태창목사) / 춘천중앙감리교회(윤철중목사) / 하안교회(김길홍목사) / 춘천열린교회(신성관목사) / 춘천신앙감리교회(이원호목사) / 춘천사상성교회(최성도목사) / 춘천일신감리교회(이은주목사) / 춘천복음사상감리교회(정재호목사)
- ◀단체▶ 이용규(영광한의원) 조은희/기정희(베드로병원선교단) 이관호/유영순(일로에이밍)
- ◀특별후원▶ 춘천중앙감리교회(권오승목사) / 유근창 / 김영명
- ◀후원계좌▶ 농협 203-02-280238 (예금주:조남진)
우체국 200022-02-129749 (예금주:조남진)
조흥은행 716-01-001389 (예금주:조남진)
조흥은행 711-04-123620 (예금주:조충환)

[값진 봉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춘천 성서화 사업을 우리 주님의 명의로 받고 친히 매월 후원금을 보내주시고 광고와 특별후원, 성서신론을 위해 좋은 글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협력으로 급된 한해의 성서화 운동이 차질없이 추진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다음해에도 변함없는 봉사와 후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뜻깊고 의미있는 성탄절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무관심

케릴린대학의 명예총장 로우렌스 고돌드 박사는 인간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관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우리의 미래에 가장 두려운 일이 폭탄이나 미사일, 핵무기 때문에 생길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문명이 그런 식으로 끝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죠. 바로 우리가 다이아몬드 아무 것에도 신경을 쓰지하지 않을 때, 마땅히 해야 할 일마저도 회피하려 들 때 멸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누군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보지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머물렀는가? 자네 이리봐, 우리는 말로나 히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니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군신으로써 자기를 헐릴 것이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역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의 유익을 구하라.》

(Encyclopedia of Illustration/sammool)

2002년 춘천 성서화 및 목회 기도모임 실행지

날짜	설교 & 간증	날짜	설교 & 간증
1/10	윤철중 목사(춘천중앙감리교회)	1/17	이석은 목사(춘천신앙감리교회)
1/24	정경호 목사(춘천중앙감리교회)	1/31	명희목 목사(세우사상감리교회)
2/ 7	박철원 목사(춘천중앙감리교회)	2/14	윤철중 목사(춘천중앙감리교회)
2/21	양기태 목사(신남감리교회)	2/28	김양중 목사(신복성교회)
3/ 7	최철원 목사(춘천중앙감리교회)	3/14	윤철중 목사(춘천중앙감리교회)
3/21	김기태 목사(춘천중앙감리교회)	3/28	박철원 목사(신복성교회)
4/ 4	최철원 목사(춘천중앙감리교회)	4/11	윤철중 목사(춘천중앙감리교회)
4/18	박철원 목사(춘천중앙감리교회)	4/25	양인영 장로(서울총회합동)
5/ 2	신성관 목사(춘천열린교회)	5/16	이병환 목사(춘천중앙감리교회)
5/23	윤철중 목사(춘천중앙감리교회)	5/30	조은희 목사(베드로선교단)
6/20	윤철중 목사(춘천중앙감리교회)	6/27	양인영 장로(서울총회합동)
7/ 4	고영일 목사(춘천중앙감리교회)	7/11	박철원 목사(세우사상감리교회)
7/18	황원진 목사(춘천열린교회)	7/25	이석은 목사(춘천신앙감리교회)
8/ 1	변석규 목사(신남감리교회)	8/ 8	조충환 목사(춘천신앙감리교회)
8/29	김종호 목사	8/22	신성관 목사(춘천열린교회)
9/ 5	조충환 목사(춘천신앙감리교회)	9/12	변석규 목사(신남감리교회)
9/26	정경호 목사(춘천CCC선교회)	10/10	소영재 목사(만리동신교회)
10/17	김기태 목사(춘천신앙감리교회)	10/24	정경호 목사(춘천CCC선교회)
11/ 7	조충환 목사(춘천신앙감리교회)	11/14	조은희 목사(베드로선교단)
11/21	변석규 목사(춘천신남감리교회)	12/ 6	김기태 목사(신우동신교회)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회의실

Manna

자기관리

최근 우스갯소리로 '운동에 대한 생각이 날 때마다 운동하고 싶은 느낌이 사라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다'라는 말이 있다. 뭔가 보람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인내가 필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관리를 가장 연가 어려운 승리라고 했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훌륭한 경기장에 가서 자신이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고 그 팀이 이기면 '우리가 이겼다'하며 좋아한다. 사실 이런 것은 선수들이고 관중들은 입장료를 지불하고 자리를 배워주고 소리를 지르며 응원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이겼다'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훈련한 운동선수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대가를 얻으려 한다. 많은 복음주의 교회에는 헌금으로 입장료를 지불하고, 예배를 온종일 보듯 관망하고, 설교가 '근사하면' 경기에 감탄하듯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관망하며 환성을 지르는 것 이상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삶의 훈련이 무엇인지 배워야 한다.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경건함이지 사역의 성공이 아니다. 하나님 중심의 헌신과 경건한 삶이 목적이 아니라,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한 성령의 가르침과 함께 우리 관념의 연습이 필요하다. 당신은 그 혜택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남진이 일상의 유혹들과 마주할 때/부르스 김원식:sammool@naver.com)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대통령선거



정 경 호 목사
춘천 C.C.C. 대표

12월 19일은 국가 임시 공휴일로 임기 5년의 대한민국 16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이다.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저마다 특징 있는 국가 제도를 갖고 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선제 선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지도자로 우리 민족의 장래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정치의 핵심이다. 국민의 한 주권자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번 대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

나님의 뜻을 온 국민이 발견하고 순복함으로 다시 한번 영적 부흥, 도덕적 부흥, 경제 부흥을 이루어 전 세계에 복음을 수출하는 21세기 선진국가로 되길 기도하는 마음이 있다. 필자는 이번 투표를 하면 대통령 선거에 네 번째 임하게 된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더 많은 기도와 관심을 갖고 있다. 지난 대통령들이 재임시는 좋아 보였는데 퇴임후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생각이 많았다. 비판 받는 것도 많지만 나름대로 제 임시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신 분들이다. 역대 대통령선거를 돌아볼 때 선거가 끝나고 당선자가 확정된 후에도 부정 선거 시비가 끊임 없이 이어졌다. 선거 운동 기간 중에서도 비난했던 언급이 집권자는 정치 보복으로 패자는 무조건적인 탄압으로 국정의 마비와 정쟁으로 인한 국민의 소모가 정치 불신을 초래하기도 했다. 국민대화를 중시하고 결집했던 선거 후 지역간, 계층간 갈등이 더 증폭되는 사례

가 흔히 있었다. 지금도 이런 조정이 없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나라에 큰 은혜를 주시길 기도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때 지도자를 사용하셨다. 이번 16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 (롬13:1) 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을 마치고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회초를 쓴 것을 뉴스를 통해 본 기억이 있다. 이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 할 일을 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라는 뜻이다.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정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허락하신다는 기독교 정신과 부합한 말이다. 분명 한 것은 일꾼들의 후보 중에 한 분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또한 여섯 분은 떨어지는 것이 하

나님의 뜻이다. 뽑힌 대통령은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잘 살도록 선정을 베푸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한 분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과정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후보들이 겸손하고 선거법을 지키고 백성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할 것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선거 후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당선자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모든 국민들에게 선을 이루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롬13:3) 반대편에 섰던 후보들과 국민들은 각 사명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해야 한다.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고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롬13:1,2) 선거 후가 더 중요하다. 누가 되었든 당선자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모든 국민들은 믿어야 한다. 대통령은 하나님의 사자를 세우고 모든 백성들은 권세자에게 순복함으로 온 국민의 힘을 모아 국가적 부흥을 일으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계에 나누어주는 나라가 되길 기도 드린다.

춘천 기독교연합회 제7차 총회



회장 임신영 목사

춘천기독교 연합회는 지난 12월 2일 오후 중앙감리교회에서 목사, 장로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하고 임신영 목사(동부장로교회)를 회장으로 추대하고 12월 11일 회장단 회의를 통해 새임원진을 결정했다. 또 15일 춘천시청 앞 중앙로 톨라리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점등예배를 드렸다. ▲회장 임신영 목사(동부장로교회) ▲부회장 유진형 목사(남춘천감리교회) ▲오승룡 목사(춘천성서교회) ▲황병호 장로(제일장로교회) ▲홍무 김지현 목사(신사동장로교회) ▲부총무 조영호 목사(춘천그리스도교회) ▲김종열 장로(평화장로교회) ▲서기 박민관 목사(광명감리교회) ▲부서기 이춘일 목사(베드로순복음교회) ▲회계 임영일 장로(춘천침례교회) ▲부회계 김성욱 장로(순복음춘천교회) ▲감사 김치홍 목사(교동장로교회) 심인섭 장로(신성감리교회), 임 회장은 재임기간 교회 상호간 목회자와 신도들간에 화해를 통하여 복음선교와 성서학을 이루는데 전심전력 할 것이라 세리나, 한양요임, 군선교 활동과 이웃돕기, 사비비 퇴치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책과 신앙의 만남



『화해의 아이』

(돈 리차드슨, 생명의말씀사)

1962년 인육(人肉)을 먹고 배반(背叛)을 최고의 덕목으로 알고 문명과 완전히 단절된 사위부족(네덜란드령 뉴기니아)에게 복음의 충리를 전하기 위하여 생명을 내주고 달려간 선교사 돈 리차드슨의 책 『화해의 아이』 중에 이런 일화가 있다. "사위족의 이상은 우정을 이용해서 도살할 희생물을 살찌게 하는 이상. 다른 이의 불행과 멸망에서 위트와 기쁨을 찾는 이상이었다". 이런 부족에게 선교사가 가뭇수다의 배반과 예수의 십자가에 처형되기를 선포하였을 때 사위족들은 가뭇수다를 용서하는 것이었다. "배반을 철학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화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선교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사위인들도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서로 잡아먹기 위해 우정으로 살찌우고 있는 가능성"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 문제였다. 사위족들은 어려서부터 "복수와 폭력"과 배반을 전통적인 신성한 의무로 떠받치는 전통과 영웅을 이 한기들을 끊임없이 되면서 자라난 자들이었다. 이런 자들을 부족간의 화해를 찾는 일이란 불가능한 듯 하였다. 그래서 선교사는 마침내 "여러분들이 서로 화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러분을 떠나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 사위부족 안의 두 마를 해남과 카루로 사이에 큰 격언이 일어났다. 서로 책임을 떠맡기려 했기 때문이다. 선교사는 "자기 도취적인 절망으로 피로하고 있었다." 그런데 늦은 밤에 양쪽 마을 지? 뿔뿔?나자들이 찾아와 "우리를 깨달 마시지 마시오.....내일 우리는 화해할 것이요!"라고 했다. 과연 그들의 화해가 가능할까? 어떻게 화해한 것인가? 하지만 배반을 이상으로 하는 부족들간에 화해의 수단이 있었다. 선교사는 그것을 자신의 한계 끝 절망 가운데서 발견한 것이었다. 화해의 방법은 부족간에 아기를 서로 교환함으로써 화해를 시도하는 풍습이 드물게 있었다. 아

이들이 살아있는 한 평화는 유지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평화조약을 부족간에 엄숙하게 실행했다. 드디어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다. 배반과 복수와 인육과 해골로 장식된 사위부족의 충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선교사에 의해 새로운 복음의 충리로 바뀌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영속한 화해의 순간의 기회를 선포하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삼는다. 인간의 화해란 자기 살아있는 한 계속되겠지만, 결코 영원할 수가 없을을 가르치고 새로운 화해의 방법을 선교사는 복음을 통하여 제시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화해의 아이로 보내셔서 영원히 화해하기를 원하셨음을 선포하고 성령을 읽는다. "이제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없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여자는 정사를 맺었고 그 이름은 기뻐라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사9:6) 선교사는 우리에게 "구속적 유비(Redemptive Analogy)"라는 귀한 교훈을 준다. "영적인 인리를 특정 교회의 풍습에 적용하는 원리이다. 우리가 깨달았던 원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고유한 문화 속에 구속적 유비들을 마련하셨으므로 그들을 복음화시킬 만반의 준비를 미리 갖추어 놓으신 것이다" 도저히 화해할 것 같지 않았던 부족을 화해시키고, 하나님과 화해를 가능케 한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결과다. 하지만 이런 결실이 맺어지기까지 선교사의 헌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다. 12월 주님의 계절에 우리 어떤 풍습을 즐기고 있는가? 성탄 축리를 가장하다. 그러하다. 적절하다. 교회마다 걸어 놓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이 충리가 화해의 충리가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충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으시리라!

변석규 목사(춘천성서교회)

장로 임직과 나의 다짐



이 범 천 장로
전 국가정보대학원장
서울만민장로교회

[할렐루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 하겠느니라(요8:29).]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1939년 태백산 준령 대관령 기슭에서 태어나 부모님에게서 큰바위 밑에서 1년에 한번씩 자식들의 건강과 복을, 그리고 중년을 기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던 나를 1967년 3월 20일 교통사고로 하여금 인생의 허무와 덧없음을 깨닫게 하고 주님의 돌림 고비로 발길을 인도하신지 35년 만인 지난 달 11월 17일에 장로로까지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어 주님을 영접케 하고 온혜의 보좌 앞으로 날로날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이심을 확인하면서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공직

생활 33년간을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께 그저 눈물겹도록 감사할 뿐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강원지방장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그저 감격하여 새벽기도나 주일예배 때마다 헌원이 눈물을 흘렸고, 본부 총무국장, 정보대학원장 등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믿음위에 굳게 서지 못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도 부족하였습니다. 다만 때때로 산발나루 십자가를 나누어주며 기뻐하셨는데도 교회에서 간증하였고 춘천성서화 기도모임에 참가하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혼자두지 아니하시고 퇴직 이후에도 의료선교회 회장, 기독교 우회 회장, 청년부 부장 등 믿음의 생활에 동행하여 주셨고 끝내 감당치 어

려운 장로직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어 나에게 주신 직분이라면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지난날의 많은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한 말을 믿고, 본부와 고난이 나의 고난으로 받아드려 순종하고 복종하고 청종하여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으로 장로로서 아 니 기독교인으로서는 향기를 발하고 반듯한 기독교인의 삶을 통해 봉사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 증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도록 그를 증거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합니다. 끝으로 부족한 저를 위해 영없이 기도해주신 성서신문 독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일본 동경 홀리창립 총회

전국 홀리클럽 연합회는 2003년 1월 8일 오후 3시 동경중앙교회에서 일본 동경홀리클럽 창립총회를 가질 예정이며, 홀리클럽 회원과 목회자를 대상으로 방문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날 오후 7시에 열린 창립예배에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가 강사로 초청되었다. ▶일시: 2003년 1월 7일(화)~1월 10일(금) 까지(3박4일) ▶장소: 일본 동경 ▶참가비용: 85만원 ▶신청마감: 12월 25일

▶여행일정: (1.7)인천동경 (1.8)하로 대, 동경 (1.9)나고 (1.10)동경, 나리다 ▶문의 및 참가신청: 02)2016-7337(김혜금 간사) 또는 016-330-2002(최계영 총무국장) 홀리클럽 연합회 ※여권 및 비자 신청: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사진 1장(여권용) / 주민증 앞면 사진 1장 / 재직증명서 1통 (직장인만 한함) / 자택 및 직장주소 전파번호 / 비자비용 1만원(단기비자 1년)

기독교 교역자연합 43차 정기총회

- 새회장 오승룡 목사 추대, 임원개편 -

춘천 기독교 교역자연합회는 지난 11월 28일 오전 11시 춘천성서교회에서 목회자 회원 40여명이 참석하여 제4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사업결산보고와 회장을 비롯한 임원 개편을 개설했다. ▲회장 오승룡(춘천성서교회) ▲부회장 김동희(춘천감리교회) ▲김유식(한신장로교회) ▲총무 최원복(남춘천침례교회) ▲협동총무 백낙원(남부제일감리교회) 교역원(늘푸름성서교회) 문정심(사우동장로교회) 박문수(행복한순복음교회) ▲서기 권기호(시민장로교회) ▲회계 이춘일(베드로

순복음교회) 회장으로 추대된 오승룡 목사는 회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봄, 가을 체육대회 및 동반대회를 장려하며 건강과 신앙에 주력할 것이며 영성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외선교 등 목회자들의 위상을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지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43년 역사를 가진 동 연합회에 대하여 보다 나은 사역을 기대하고 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하므로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랐다.



그 어느때 보다 평화가 절실한 우리들의 성탄절입니다.

춘천성시와 송년기도회 모임

춘천성서회기도모임(대표 조은제)은 12월 12일 오후 6시 30분 월드비전에서 춘천홀리클럽 주관으로 송년예배를 드렸다. 홀리클럽 회원들이 마련한 만찬을 나누고 이어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시민구원과 먼저 믿는 자의 거듭

남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드렸으며 박상철 목사(제일성서교회)의 설교에 깊은 깨달음을 받고 성서화를 위해 매진할 것을 다짐하였다. 새해에는 1월 9일 오후 7시 30분부터 기도모임을 계속한다.

용천서지방 정장년선교회 연립 즉구대회, 연선예배

용천 서지방 정장년선교회 연합회(회장: 만민교회 이상선 장로)에서는 지난 지난 12월 8일 오후 3시에 양덕원 실내계이트빌에서 만민, 양덕원, 동부, 한신교회 등 정장년선교회 회원 50여명과 용천서지방 양명환간사, 한천덕 목사, 강병두 목사, 현재호 목사가 참석해 제1회 즉구대회를 개최했으며 경기 결과, 양덕원교회가 우승하

였다. 오후 7시에 양덕원교회 이윤상 회장의 사회, 만민교회 권순기 연합회 부회장의 대표기도, 한천덕 목사의 "지원제하는 삶"이란 말씀으로 3/4분 기 순회 헌선예배를 드리고 2003년 1월 26일 만민교회(양명환 담임목사)에서 순회헌선예배 및 정기총회를 갖고 한해의 결산과 임원선출, 신년도 사업계획을 협의키로 했다.

춘천 기독교 직장인 정오예배 안내

<<정오예배 제10주년 기념 감사예배>>

일시: 12월 24일(화) 12:00(예배)~12:35(식사) 장소: 동부장로교회
설교: 임신영 목사 사회: 안대: 춘천직장선교연합회 임원
기도요곡: 한국전력선교회

일시: 1월 28일(화) 12:00(예배)~12:35(식사) 장소: 동부장로교회
설교: 춘천기독교연합회 사회: 안대: 춘천직장선교연합회
기도요곡: 춘천직장선교연합회

춘천직장선교연합회 정오예배위원장 진상훈 H.P.019-387-7110
(연합회비밀부) 우체국 202267-02-050582 예금주: 용달샘